Gallup
0316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7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T_02 3702 2100 H_www.gallup.co.kr
70 Sajik-ro Jongno-gu Seoul 03167, South Korea F_02 3702 2121

갤럽리포트 G20221214

2022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한국갤럽은 2007년부터 매년 말 그해를 빛낸 각 분야 '올해의 인물'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는 이를 위해 11월 7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1명을 면접조사했습니다.
스포츠선수, 예능방송인·코미디언, 탤런트에 이어 오늘은 영화배우,
다음 주 월요일(19일) 대중가수/인기가요 등 분야별 '2022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전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연도별 박스오피스) 집계 기준으로 볼 때 2019년에는 〈극한직업〉〈기생충〉 등 다섯 편이 천만 이상 관객을 모았고 백만 이상 관객 영화도 총 50편에 달했지만, 2020년과 2021년 최다 관객 영화는 475만 명을 기록한 〈남산의 부장들〉이었습니다. 2022년 들어서는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며 〈범죄도시2〉가 천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전후 영화 관람 행태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극장 개봉 시기보다 언제 OTT 서비스에 등장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입소문에 뒤늦게 인기 순위를 거슬러 올라가는 일도 종종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한국인이 주목한 영화배우는 누구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22년 11월 7~24일
2. 표본추출: 층화 집락 확률 비례 추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1명
5. 표본오차: ±2.3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26.7%(총 접촉 6,634명 중 1,771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주요 결과

- 2022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헌트〉 이정재 2년 연속 1위
- 마동석, 송강호, 윤여정, 황정민·정우성 2~5위
- 손석구 10위권 첫 포함
- 영화, OTT 서비스 내 다른 영상물과 경쟁 양상
- 남배우 상위권 절대다수 현상 지속

2022년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헌트〉 이정재 2년 연속 1위
- 마동석, 송강호, 윤여정, 황정민·정우성 2~5위

한국갤럽이 2022년 11월 7일부터 24일까지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1명에게 올 한 해 가장 활약한 영화배우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자유응답), 이정재가 34.4%의 지지를 얻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정재는 올해 제작, 감독, 각본, 주연까지 도맡은 첩보 액션 영화 〈헌트〉를 선보여 호평을 이끌었다. 그는 1993년 드라마 〈공룡선생〉(SBS)으로 데뷔, 1995년 드라마 〈모래시계〉(SBS) '백재희' 역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이후 영화에 더 주력해 대중에게는 영화배우로 깊이 각인되어 있는 듯하다. 작년 하반기 넷플릭스 웹드라마 〈오징어 게임〉 주인공 '기훈' 역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타 반열에 올랐고, 디즈니+의 새 스타워즈 시리즈 〈애콜라이트〉 주연으로 발탁돼 현재 촬영 중이다.

2위는 올해 유일한 천만 관객 영화 〈범죄도시2〉의 괴물형사 '마석도' 마동석(18.8%)이다. 〈범죄도시〉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 삼아 전체 8편까지 계획된 시리즈로, 마동석이 직접 제작·기획·주연에 나선 범죄 액션 영화다. 2017년 1편, 2022년 2편에 이어 2023년 3편 개봉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6년 처음으로 '올해의 영화배우' 10위에 이름을 올렸고, 2017년 2위, 2018년 1위를 차지하는 등 6년 연속 5위권에 들었다. 마블 영화 〈이터널즈〉에서 '길가메시' 역을 맡아 할리우드로 진출했다.

3위는 송강호(13.5%)다. 올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 〈브로커〉의 '상현' 역으로 제75회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항공 재난 영화 〈비상선언〉의 형사 '인호' 역으로도 관객을 만났다. 그는 2014년 〈변호인〉, 2015년 〈사도〉, 2016년 〈밀정〉, 2017년 〈택시운전사〉 등 영화마다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인물을 연기해왔고, 2019년 〈기생충〉으로 세계인에게 이름 알렸다. 2007년 이후 매년 조사에서 최다 1위(5회), 개봉작이 없는 해에도 최상위권을 지킬 정도로 팬들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는 배우다.

4위는 윤여정(7.7%)이다. 그는 2021년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비롯해 유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고, 위트 넘치는 소감으로도 세계인을 사로잡았다. 올해는 재일 한인 가족 80년 삶을 그린 〈파친코〉에서 노년의 '선자'로 묵직한 울림을 전했다. 1966년 TBC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래 반세기 동안 드라마, 영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예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수리남〉의 황정민과 〈헌트〉의 정우성이 공동 5위(6.5%), 〈비상선언〉의 이병헌(6.0%)이 7위, 〈공조2: 인터내셔날〉의 현빈(5.5%)과 유해진(5.2%)이 각각 8, 9위, 그리고 〈범죄도시2〉의 악당 손석구(5.0%)가 10위다. 손석구는 올해 영화배우뿐 아니라 탤런트 부문에서도 10위권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상위 10명 외 1.0% 이상 응답된 인물은 하정우(4.4%), 김혜수(3.1%), 박해일(2.1%), 최민식(1.9%), 공유(1.8%), 한석규(1.3%), 안성기(1.2%) 등이다.

● **2022년을 빛낸 영화배우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최근 출연작
1위	이정재	34.4	〈헌트〉(제작, 감독, 각본, 주연)
2위	마동석	18.8	〈범죄도시2〉(제작, 기획, 주연)
3위	송강호	13.5	〈브로커〉 〈비상선언〉
4위	윤여정	7.7	〈파친코〉(애플TV+)
5위	황정민	6.5	〈수리남〉(넷플릭스), 〈헌트〉(우정출연)
-	정우성	6.5	〈헌트〉
7위	이병헌	6.0	〈비상선언〉
8위	현 빈	5.5	〈공조2: 인터내셔날〉
9위	유해진	5.2	〈공조2: 인터내셔날〉 〈올빼미〉
10위	손석구	5.0	〈범죄도시2〉

질문)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활약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답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 2022년 11월 7~24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71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영화, OTT 서비스 내 다른 영상물과 경쟁 양상

우리 일상은 코로나19 그늘을 벗어나고 있지만, 예전과 같은 천만 관객 영화 전성시대가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영화 개봉과 OTT 서비스 공개 시차가 점차 줄어들고, 집에서 TV나 모바일 기기로 영화를 접하는 일이 많아졌다. 영화와 드라마의 경계도 거의 사라졌다. 시청자는 보고 싶은 콘텐츠를 OTT 서비스 메뉴에서 검색하고 선택할 뿐이다. 이제 영화는 대형 스크린보다 OTT 서비스상에서 웹드라마나 웹예능 등 다른 영상물과 경쟁하게 됐다.
올해의 화제작 〈수리남〉은 넷플릭스, 〈파친코〉는 애플TV+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이처럼 OTT 서비스가 영상물 주요 유통 경로로 부상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특히 고령층)은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남배우 상위권 절대다수 현상 지속

드라마 연기 중심인 '올해의 탤런트' 상위권은 여배우가 종종 과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올해의 영화배우' 상위권은 남배우 절대다수 현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2007년에는 전도연이 49.7%로 1위에 올랐고 2008년에는 손예진(2위), 김혜수(3위), 전도연(4위)이 상위권에서 각축했다.
이후 여배우 기준 최고 순위는 2021년 윤여정의 2위다: 2009년 하지원 4위, 2010년 김혜수 7위, 2011년 김하늘 4위, 2012년 김혜수 3위, 2013년 김혜수 7위, 2014년 전지현 11위, 2015년 전지현 4위, 2016년 전지현 9위, 2017년 김혜수 12위, 2018년 김혜수 14위, 2019년 이하늬 10위, 2020년 김혜수 9위, 2022년 윤여정 4위.

● **올해를 빛낸 영화배우 - 최근 16년간 추이** (%,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전도연(49.7)	송강호(13.1)	이병헌(20.1)	원 빈(30.7)
2위		송강호(16.5)	손예진(11.3)	장동건(17.9)	장동건(14.4)
3위		배용준/안성기(6.4)	김혜수 (7.4)	설경구(17.5)	강동원(11.6)
4위		-	전도연/장동건(7.3)	하지원(14.3)	이병헌 (6.4)
5위		설경구 (5.0)	-	정지훈 (8.3)	송강호 (5.6)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위	원 빈(11.3)	이병헌(37.6)	송강호(22.5)	최민식(42.3)	유아인(26.9)
2위	박해일 (9.5)	송중기(15.0)	하정우(18.9)	송강호(22.2)	송강호(20.3)
3위	장동건 (8.8)	김혜수 (7.6)	이병헌(18.0)	류승룡(10.5)	황정민(16.1)
4위	김하늘 (8.2)	장동건 (7.4)	류승룡(10.1)	하정우 (9.0)	전지현(14.2)
5위	공 유 (5.8)	하정우 (6.4)	설경구 (7.4)	이병헌 (4.5)	하정우(11.8)
순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위	황정민(21.2)	송강호(35.0)	마동석(19.9)	송강호(29.8)	송강호(27.8)
2위	송강호(18.4)	마동석(17.8)	하정우(18.6)	마동석(18.2)	이병헌(14.0)
3위	공 유(12.7)	이병헌(12.6)	이병헌(11.2)	공 유 (8.9)	마동석 (9.1)
4위	하정우(11.4)	황정민 (8.1)	송강호(10.9)	조진웅 (8.5)	황정민 (7.5)
5위	유해진(10.8)	하정우/설경구(6.3)	주지훈 (7.3)	이병헌/하정우(7.1)	정우성 (6.2)
순위	2021년	2022년			
1위	이정재(39.7)	이정재(34.4)			
2위	윤여정(18.9)	마동석(18.8)			
3위	마동석(11.4)	송강호(13.5)			
4위	송강호 (8.8)	윤여정 (7.7)			
5위	이병헌 (7.0)	황정민/정우성(6.5)			

- 매년 말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 **2022년을 빛낸 영화배우 - 성/연령별**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사례수 (명)	(1위) 이정재	(2위) 마동석	(3위) 송강호	(4위) 윤여정	(5위) 황정민	(5위) 정우성	(7위) 이병헌	(8위) 현 빈	(9위) 유해진	(10위) 손석구
전체		1,771	34.4	18.8	13.5	7.7	6.5	6.5	6.0	5.5	5.2	5.0
성별	남성	881	34	23	15	7	6	8	6	4	5	4
	여성	890	35	15	12	9	7	5	6	7	5	6
연령별	13~18세	155	28	24	5	2	3	8	2	11	5	8
	19~29세	261	38	19	9	4	8	9	6	7	4	9
	30대	247	39	24	10	7	8	6	3	6	4	8
	40대	301	39	20	13	7	6	8	7	5	5	5
	50대	319	35	20	19	10	6	6	6	7	9	5
	60대이상	487	29	13	17	11	7	4	8	2	4	1
남성	13~18세	80	29	32	5	3	2	9	1	6	5	8
	19~29세	137	36	23	10	3	8	12	8	3	4	7
	30대	128	38	31	13	6	10	6	3	7	4	8
	40대	153	37	24	13	5	6	9	7	4	7	3
	50대	161	36	26	19	9	4	9	7	6	8	3
	60대이상	222	28	12	22	10	6	4	6	3	4	1
여성	13~18세	75	26	15	6	1	5	8	3	16	4	7
	19~29세	124	39	15	8	5	9	5	5	12	4	11
	30대	119	39	16	6	7	6	5	2	5	5	8
	40대	148	41	16	13	9	6	7	7	6	3	6
	50대	158	33	14	18	11	8	4	5	7	10	6
	60대이상	265	31	13	13	12	7	5	10	2	4	1

질문) 2022년 한 해 동안 가장 활약한 영화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답해 주십시오. (2명까지 자유응답)

- 2022년 11월 7~24일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1,700명 면접조사. 한국갤럽 www.gallup.co.kr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3702-2571/2622

—

이 문서에는 네이버 나눔글꼴과 한글과컴퓨터 함초롬체를 썼습니다.